

**PONY
CHUNG
FOUNDATION**

CONTENTS

KOREAN

| | |
|----|-----------------------------|
| 4 | INTRO |
| | — PONY CHUNG ROAD |
| 12 | PONY CHUNG SPIRIT |
| 14 | PONY CHUNG ADVENTURES |
| 18 | HYUNDAI DEVELOPMENT COMPANY |
| 20 | PONY CHUNG HALL |
| | — PONY CHUNG DREAM |
| 24 | FOUNDATION HISTORY |
| 28 | BUSINESS |

ENGLISH

| | |
|----|--------------------|
| 36 | PONY CHUNG STORY |
| 38 | FOUNDATION HISTORY |
| 42 | BUSINESS |

Innovation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이
우리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Right way



좋은 길보다
옳은 길을 걷습니다.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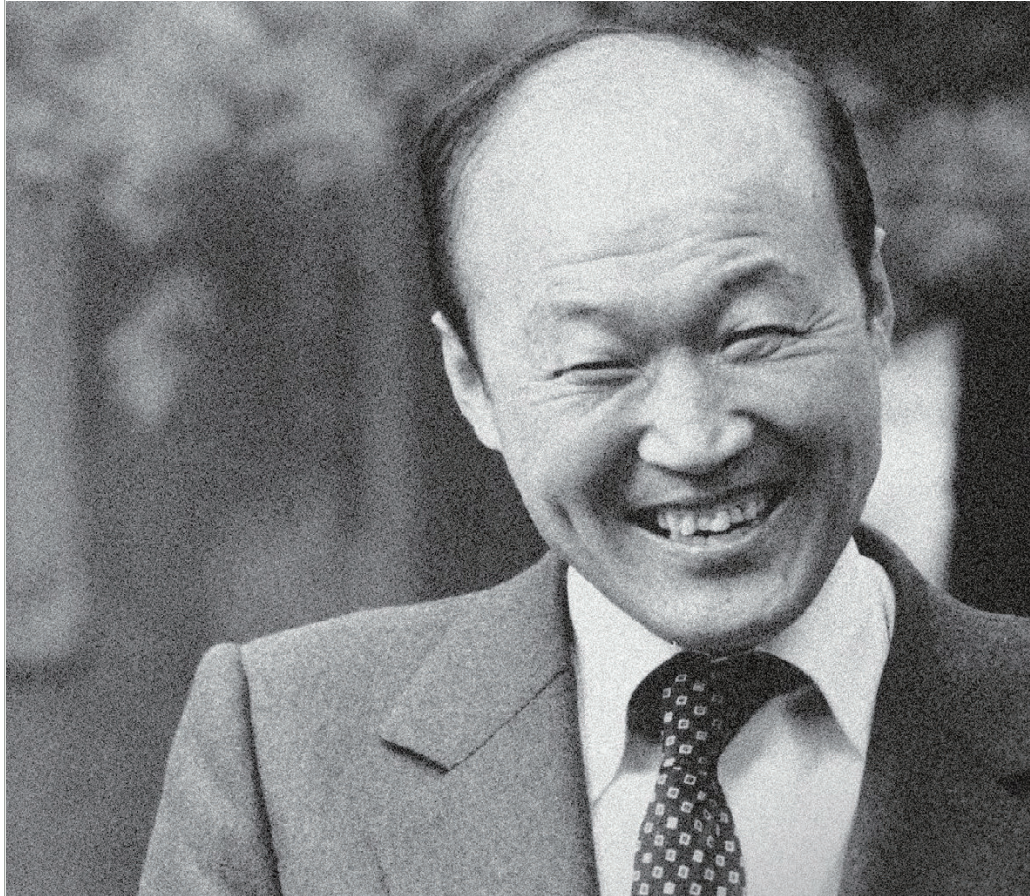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의 역사를 씁니다.



PONY CHUNG ROAD

회원관 Member's Lounge

포니 정



Pony Chung

정세영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기업가다. 그는 가발과 신발이 수출 품목이던 시대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꿈을 꾸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는 이 신념을 자동차와 함께한 치열한 삶 속에서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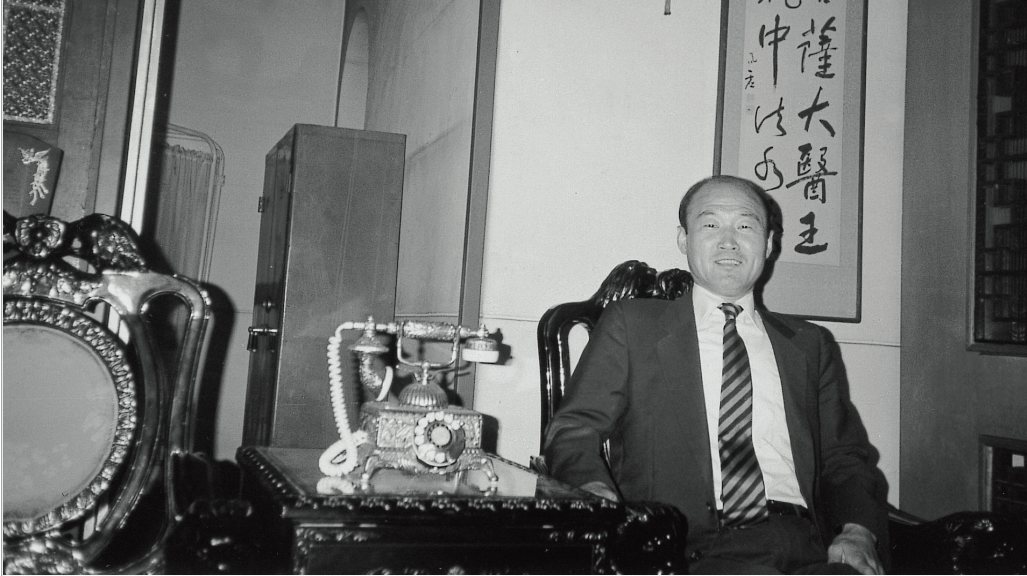
무엇보다 그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었다.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 없이는 어떤 분야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국산 자동차 생산에 힘을 쏟았다. 국산 고유모델 1호차 포니는 그렇게 탄생했다. 포니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기초가 탄탄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는 기술 확보에 힘쓰며 발전한 모델을 계속 선보였다. 끝을 모르는 도전정신으로 해외 수출의 문을 두드렸으며 인재 양성, 연구 개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했다. 자동차 신생국으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끈기와 열정으로 목표를 실현해 나갔다.

정도 경영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영원칙이었다. 그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더욱 큰 비전을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믿었다. 정도 경영을 실천하는 최고경영자로 스스로 임직원의 본보기가 되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섰다.

인재 양성은 정세영 명예회장이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면서 강조했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훌륭한 인재는 혁신과 도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직원 교육을 포함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수많은 해외 출장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입사원이 모이는 곳이면 꼭 참석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참모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더 나은 경영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정세영 회장은 자신을 저돌적이고 드라이한 사업가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고 나누는 삶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결국 혁신도 도전도 모두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함께 잘 사는 삶을 꿈꿨다. 그는 늘 ‘목표를 공유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을 혁신의 조건으로 꼽았다. 올바른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의 지성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대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렇게 모아진 마음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썼다. 휴머니스트이자 이노베이터였던 ‘포니정’.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다.

1967.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취임



“나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고유모델 안 만들면 죽어.
반대할 사람은 비켜서서 구경하라고.
나는 할 테니까.”

정세영 명예회장은 1928년 강원도 통천에서 6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참 정치인을 꿈꿨다. 하지만 큰형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제안으로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정치인과는 다른 삶이었지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65년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으로 부임했을 때였다. 그는 국내 최초의 해외 공사로 기록된 태국 파타니에서 나라티왓까지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현대건설을 포함해 어떤 회사도 경험하지 못한 대형공사였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현대는 해외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신감을 얻었고, 이때 쌓은 지식과 기술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가 성공한 삶은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65

1974

1974. 토리노 국제 모터쇼, 첫 고유모델 포니 발표



“에코도로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에
실린 포니 다섯 대. 세계를 향한 현대의
아망도 함께 실렸다.”

“회장은 지휘자요, 사장은 반주자,
각급 임원은 파트장이며,
모든 사원은 노래하는 단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세영 명예회장은 '국산차 첫 수출'이라는 감격적인 기록을 세운다. 1985년에 탄생한 '엑셀'은 출시 첫해에 18만 6천 대, 이듬해엔 26만 대가 팔렸다. 포춘지는 엑셀을 1986년 미국 10대 상품으로 선정했다. “역사상 가장 빠른 매출 신장률을 보인 수입품”이라고 격찬했다. 뉴욕타임스는 1986년 ‘산업계의 숨은 영웅 6인’ 중 한 사람으로 정세영 명예회장을 선정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20여 년 만에 첫 고유모델 자동차를 생산하고, 다시 2년 만에 전 세계 5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빠른 성장을 이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정세영 회장에게 ‘포니정’이라는 애칭이 생긴 것도 이때쯤이다. 포니를 수출하기 위해 세계를 누비는 모습을 보고 외신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본격적인 수출국 개척과 시장 점검을 위해 일 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냈던 시기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은 완전한 기술 독립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1987년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한 정세영 명예회장은 현대그룹을 계열사 간의 자율경쟁, 책임경영이란 두개의 축으로 지휘했다. 더불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며 국가기간산업과 수출에 집중했다.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세영 명예회장은 경영자로서 큰 장점이 있거나 탁월한 두뇌를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늘 배우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던 그는 인재를 키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직원들 앞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경영이나 관리상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에게 있다”고 늘 강조했다. 이런 소신 덕분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할 수 있었다. 한 동안 정치 혼란과 노사 분규를 겪으면서도 그의 지휘봉 아래 현대그룹 구성원이 뭉칠 수 있었던 비결이다.

1985

1987

1987.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 기자회견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다.”

“비록 산 정상에 서지 못해도
바른 길을 택해 산에 오른다면
그 자체로 올바른 산행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남달랐다. ‘진정한 세계화는 현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해외 현지공장 건설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캐나다, 터키 등에 공장을 세우면서 판로를 북미, 유럽 및 중동시장 등으로 확대하며 해외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집념은 1991년에 국내 최초로 독자엔진과 트랜스미션 개발로 이어졌다. 분명한 ‘Made in Korea’ 자동차가 탄생한 것이다. 기술 독립을 위한 혁신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우뚝 선 현대차의 급격한 초기 성장을 이끌었다.

정세영 명예회장에겐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경영철학이 있다. 바로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이다. 그는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있던 1996년 12월 ‘경영이념과 기업윤리 강령’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꿈은 길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행동규범과 윤리의식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커진다”라고 강조했다.

정도 경영은 말로 그치지 않았다. 정세영 회장은 스스로 수평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경영의 길을 걸으면서 모범을 보였다.

1991

1995

포니와 함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길, 앞으로도
곧은 길을 걸을 것ियो, 그 길을 달리는
내 차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자동차에 깊은 애정을 쏟아온 ‘포니정’ 정세영 명예회장. 더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던 그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의 철학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길, 건축물에 이르는 생활공간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시대에 큰 비전을 제시했던 ‘거인’, 세계 각국을 누비며 민간 외교의 모범을 보여준 ‘국경 없는 리더’, 사람을 사랑했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휴머니스트’ 정세영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추억하고 그리워할 것이다.

- 1928 강원도 통천 출생
- 1953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1954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입학
- 1955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이적
- 1957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정치학 석사
- 1965 현대건설 태국 초대 지점장 부임 및 파타나-나라티왓 공사 수주
- 1967 현대자동차 설립 및 초대 사장 취임
- 1974 한국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로 토리노 국제모터쇼 참가
- 1976 포니 본격 생산 및 에라도르에 첫 해외 수출
- 1977 한·영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1977-1995)
- 1983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 대영제국 훈장 ‘커맨더 장’ 수훈
- 1985 금탑 산업훈장 수훈
- 1986 <뉴욕타임스>, ‘산업계의 숨은 영웅’ 선정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미국에 포니 엑셀 첫 수출
- 1987 현대그룹 회장 및 현대자동차 회장 취임(1987-1995)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1987-1997)
- 1991 국내 최초 독자 엔진인 알파 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
- 1993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1993-1999)
- 1995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선정 ‘아시아 최우수 경영자상’ 수상
- 1996 연세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 1997 고려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 1998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한미협회 회장(1998-2002)
- 1999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취임
- 2005 향년 78세로 영면

2005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창립된 종합건설사로 도시개발, 주택, SOC 부문의 기획·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17개의 계열사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부동산·인프라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 로비



삼성동 IPARK TOWER



수원 IPARK CITY



부산항대교



해운대 IPARK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 혁신적 사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계승한 현대산업개발은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건축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혁신과 도전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 뛰어난 건축미와 기술력으로 완성한 각 지역의 랜드마크는 대한민국 도시 건축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 최다 주택공급 실적과 평면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터'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 정도 경영

현대산업개발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투명한 경영,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도 경영의 길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구성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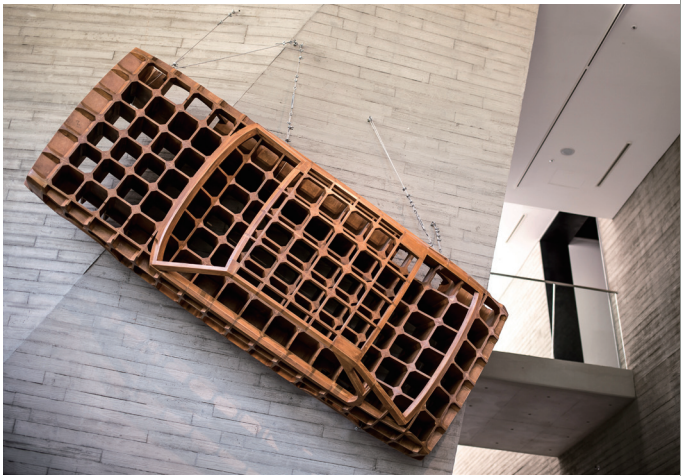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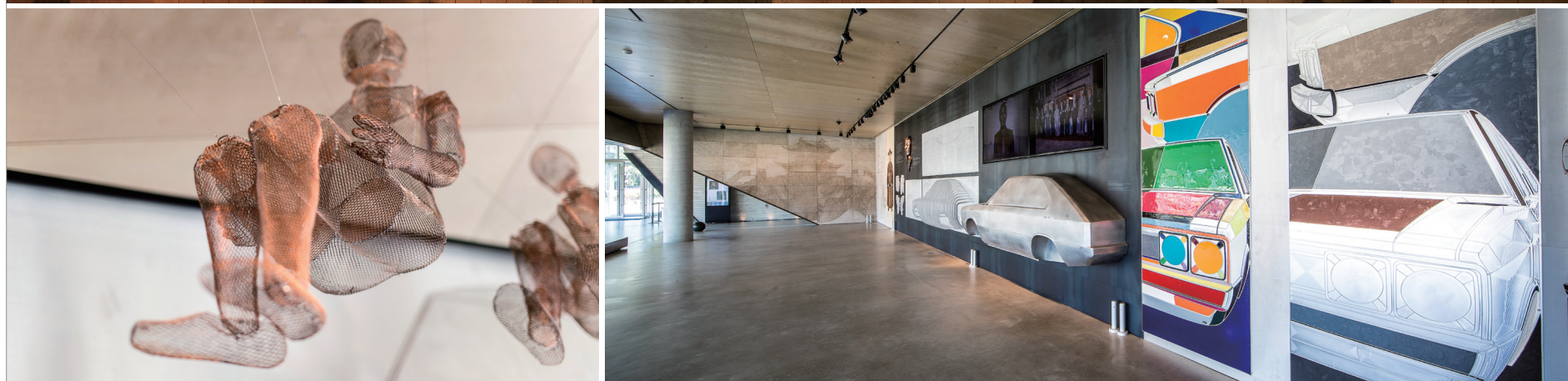
인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 인재 중시

인재를 중시하는 현대산업개발은 다채로운 교육, 연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해 직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 도전정신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혁신하며 부동산 종합 디벨로퍼로 성장해온 현대산업개발. 세계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은 조직문화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지금까지 일궈온 전통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건축문화 구축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콘텐츠를 융합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펼치며 종합부동산·인프라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정세영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3주기를 맞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1층에 포니정 홀을 개관한 데 이어, 10주기인 지난 2015년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두 번째 포니정 홀이 문을 열었다.



포니정홀 I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소재, 2008년 개관
현대산업개발 본사 아이파크타워 1층에 위치한 면적 254㎡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음악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110여 석 규모의 공연장과 포니정 추모 아트월이 장식된 로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피터 레이미디오스의 작품으로 건설명가인 현대산업개발의 전통과 이미지를 석재와 나무 같은 자연 소재들을 사용해 형상화했다. 기존의 폐쇄적인 공연장과 다르게 대형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다. 용도에 따라 열고 닫음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가로 10m 세로 5m 규모의 무대를 중심으로 최신식 음향 및 영상·조명시설을 갖춰 공연실황을 녹음, 녹화할 수 있다. 공연장 외부에 설치한 멀티비전과 음향시설로 로비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포니정홀 II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소재, 2015년 개관
현대산업개발이 건립해 수원시에 기증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SIMA) 1층 기부자를 위한 공간에 두 번째 포니정홀이 꾸며졌다. 정조대왕의 개혁과 꿈이 살아 숨 쉬는 수원의 역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했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도전정신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나무 모자이크로 형상화된 수원의 상징 장안문과 정조대왕 어진이 인상적이다. 정교한 기묘세 기법의 포니 에나멜화와 도면 등 포니정의 삶과 자동차 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작품으로 표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혁신과 계승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Currency Exchange
外幣兌換

PONY CHUNG
DREAM

도전하고 꿈꾸는 당신과 함께 달립니다

포니정 재단은 2005년 작고한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정세영 명예회장은 제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자동차 고유모델인 포니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신차 개발과 수출 시장 개척에 앞장서며 우리나라를 자동차 산업의 강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세계 5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이라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신념과 도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포니정 재단은 2005년부터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 정세영 명예회장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정신과 인재 중시 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전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지와 후원을 보내며 포니정 재단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포니정 재단
이사장 김철수



현직 이사진

김철수 이사장

- 중앙대학교 이사장
-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 前 상공자원부 장관

정몽규 이사

- 현대산업개발 회장
- 대한촉구협회 회장
- 前 현대자동차 회장

이양섭 이사

- 엠에스오토텍·명신산업 회장
- 前 현대자동차 사장

주선희 이사

- 주선회법률사무소 대표
- 前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공병호 이사

-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 前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 초대소장
- 前 인티즌 대표이사

조성호 감사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前 발텍컨설팅 사장

류용호 감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임 이사진

김진현 이사장

-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前 과학기술처 장관

어윤대 이사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前 고려대학교 총장
- 前 KB금융지주 회장

유희춘 이사

- 한일이화 회장
- 前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용석 이사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前 대검찰청 차장

전임 감사

오세훈 감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 前 서울시장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좋은 회사를 만들지만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꾸준한 관심과 든든한 뒷받침이 있을 때 창의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열정은 그들에 대한 지원과 후원으로 이어졌다.

포니정 재단은 이를 위해 재단에 출연해주신 기부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공익법인으로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포니정 혁신상, 학술지원, 장학사업 등 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포니정 재단은 정세영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하고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재무 현황

1. 출연금

| 출연자 | 금액 |
|---|------------|
| 경산공업, 세종공업, 아이서비스, 아이앤콘스, 아이콘트롤스, 정몽규, 정상영, 한국프렌지, 한무쇼핑, 한일이화,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시멘트,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DSF, 현대EP, 기타 | 46,305,770 |
| (단위: 천 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 |

3. 주요 사업 실적

| 항목 | 금액 |
|-----------------------------|-----------|
| 기부수입 | 7,000,00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 851,126 |
| 기타수입 | 119,591 |
| 전기이월액 | 1,589,248 |
| 합계 | 9,559,965 |
| (단위: 천 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 |

2. 재단 자산 보유 현황

| 항목 | 금액 |
|-----------------------------|------------|
| 기본 재산 | 44,277,000 |
| 보통 재산 | 446,054 |
| 합계 | 44,723,054 |
| (단위: 천 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 |

| 구분 | 2015년 실적 | 누계 |
|-----------------------------|----------|-----------|
| 목적사업비 | 719,864 | 4,956,089 |
| 포니정 장학금 | 432,981 | 2,869,175 |
| 국내 대학 장학금 | 255,567 | 2,042,028 |
| 베트남 대학 장학금 | 34,755 | 288,363 |
| 베트남 초청 장학금 | 59,744 | 143,373 |
| 해외 학술탐방 | 20,000 | 105,628 |
| 예술 장학금 | 34,775 | 189,732 |
| 새터민 학생 지원 | 28,140 | 100,050 |
| 학술지원사업 | 85,680 | 511,060 |
| 포니정 혁신상 | 100,000 | 900,000 |
| 기타 목적사업비 | 41,679 | 616,330 |
| 지원사업비 | 121,046 | 652,480 |
| 합계 | 840,910 | 5,608,569 |
| (단위: 천 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 | |

재단이 걸어온 길

| | | |
|------|----|---------------------------------------|
| 2005 | 10 | 주무관청 설립 허가 |
| | 11 | 관할법원(서울지방법원 삼성동기소) 등기 완료 |
| 2006 | 04 | 포니정 혁신상 협약식 개최(매일경제신문사) |
| | 05 | 故 정세영 회장 추모집 발간 |
| | | 故 정세영 회장 흉상 제막식 |
| | 09 | 포니정 장학생 프로그램 신설 |
| | 12 | 제1회 포니정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 2007 | 09 |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개최 |
| | 10 | 베트남 장학사업 MOU 체결(베트남호치민국립대학교) |
| | | 제1회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 2008 | 05 | 포니정홀 I 개관(삼성동 아이파크타워) |
| | 08 | 포니정 학술지원 프로그램 신설(역사학 교수 연구 지원) |
| | 10 | 베트남 장학사업 확대(베트남하노이국립대학교) |
| 2010 | 05 | 故 정세영 회장 5주기 추모집 「포니정, 그의 꿈은 계속된다」 발간 |
| 2011 | 05 | 새터민 영어교육 후원 MOU 체결(영국문화원) |
| | 11 | 베트남 초청장학 프로그램 MOU 체결(고려대학교 대학원) |
| 2012 | 02 | 제1기 포니정 베트남 초청장학생 입국 |
| | 06 | 포니정 학술지원 프로그램 변경(인문학분야 신진학자 지원) |
| 2013 | 04 | 포니정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 신설 |
| | 09 | 제1회 포니정재단과 함께하는 영상뮤직 쿵쿠르 후원 |
| 2015 | 02 | 제1회 포니정 장학생 홈커밍데이 개최 |
| | 05 | 故 정세영 회장 10주기 추모집 「포니정, 나의 삶 나의 꿈」 발간 |
| | 08 | 성실공익법인 확인 |
| | 09 | 베트남 교환장학 프로그램 신설 |
| | | 포니정홀 II 개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 | 12 | 유소년 축구장학금 지원 MOU 체결 |
| | | 제1회 유소년 축구장학금 수여식 개최 |
| 2016 | 02 | 제1기 포니정 베트남 교환장학생 입국 |
| | 05 | 한국학 연구지원 MOU 체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 | 08 | 제1회 민연 젊은 한국학아카데미 후원 |
| 2017 | 03 | 제1기 포니정 펠로우십 연구자 입국 |

혁신상

‘혁신적 사고와 도전정신에 바치는 헌사’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평생토록 혁신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준 정세영 명예회장. 그 외롭고 지 난한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꿈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나 가는 오늘의 포니정을 후원하고 응원하고자 한다.

사업 배경

포니정 혁신상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이끈 개척자이자 선구자였던 정세영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 다.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과 도전을 통해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거나, 그것을 통해 사 람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선정 과정 및 시상 내용

포니정 재단은 매년 1, 2월 사이 재단 임원진, 역대 수상자, 역대 심사위원, 국내외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으로부터 혁신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 원회가 각 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을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5월 전후로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 상자에게 1억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역대 수상자

- 2007 ● 제1회 반기문 UN 사무총장
- 2008 ● 제2회 서남표 전 KAIST 총장
- 2009 ● 제3회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총재 김범일)
- 2010 ● 제4회 차인표·신애라 부부
- 2011 ● 제5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 2012 ● 제6회 김범수 (주)카카오 이사회 의장
- 2013 ● 제7회 석지영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종신교수
- 2014 ● 제8회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2015 ● 제9회 조르제토 주지아로 산업디자이너
- 2016 ● 제10회 조성진 피아니스트



제1회 혁신상 수상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Interview

2013년 제7회 혁신상 수상자 석지영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종신교수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기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합 니다. 제가 법의 언어에 고지식하게 따르는 법률 전문가보다 예술을 비롯한 다 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젊은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이란 결과보다 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과정이야말로 창조적 혁신을 낳는 힘입니다.”

제4회 혁신상 수상자 차인표·신애라 부부



제5회 혁신상 수상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제9회 혁신상 수상자 조르제토 주지아로 산업디자이너



학술지원사업

‘기초학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

책을 사랑한 애독가였던 정세영 명예회장은 학문에 대한 열정도 높았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았던 공부하는 경영자, 새로운 혁신과제에 열정적으로 도전한 경영자의 정신이, 오늘날의 신진 학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 포니정 학술지원

사업 배경

포니정 재단은 기본이 바로 서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라 2007년부터 인문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초학문은 응용 학문과 실용학문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학 교수를 대상으로 했던 포니정 학술지원 프로그램은 2013년, 인문학 분야 박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학자가 오로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이고도 꾸준한 지원으로 인문학의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

선발 과정 및 지원 내용

학위 취득 5년 이내의 인문학 분야 박사를 대상으로 매년 5월 학술지원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재단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진행되는 2차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속하지 않은 타 대학 전공교수 2인이 교차 평가한 서류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발의 3배수를 선발한다. 11월에 재단 추천 교수 3인의 1대 1 심층 면접평가를 진행한 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자 2명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연구자에게 각 연구비 4천만 원과 출판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역대 지원 대상자

| | |
|------|--|
| 2009 | ● 최윤오 교수 연세대학교 사학과 정혜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
| 2010 | ● 최기연 교수 서강대학교 사학과 함동주 교수 여화여자대학교 사학과 |
| 2011 | ● 구범진 교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민경현·조명철 교수 고려대학교 사학과 |
| 2012 | ● 남동신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지형·백옥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
| 2013 | ● 강은지 박사 중국 푸단대학교 중국어학 전공 |
| 2014 | ● 이보고 박사 중국 청화대학교 중국현대문학 전공 최해별 박사 중국 북경대학교 당·송사 전공 |
| 2015 | ● 허현 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미국사 전공 하지영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한문학 전공 |
| 2016 | ● 이유표 박사 중국 북경대학교 중국고대사 전공 김수연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사 전공 |



■ 젊은 한국학자 펠로우십

사업 배경

세계적으로 한국문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니정 재단은 꿈틀대고 있는 한국학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손잡고 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초청한다. 안정된 재정 지원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내 자료조사, 연구 활동과 네트워크, 연구서 출판을 돕고 한국학의 발전과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발 과정 및 지원 내용

매년 6월 한국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지 5년 이내인 외국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류심사를 거쳐 8월에 포니정 펠로우십 선정위원회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 5천만 원, 출판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이듬해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소속 ‘포니정 연구교수’로 초청해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

사업 배경

국내외 젊은 한국학 연구자들이 연구 시작 단계부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학 네트워크를 확장하자는 취지다. 한국학 전문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함께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면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선발 과정 및 지원 내용

국내외 대학에서 한국학 분야로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20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열흘간 한국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전문가 집중 강좌 및 연구발표회, 답사 등 다양한 연구와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연구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해외 참가자에게는 여행경비(미주/유럽 100만 원, 아시아 50만 원)를 제공한다.

Interview



2012년 학술지원 대상자 남동신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연구를 통해 금석문에 나타난 당시의 정치·사회적 모습이나 대외적 조청관계에 대한 단서는 물론, 한국 고대 및 중세 금석문의 전체 목록 및 판독문의 내용도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뿌리 약한 나무가 쉽게 쓰러지듯 기초학문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국가 발전은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일수록 사람과 사회를 탐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중시한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 높은 차원의 인간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일 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도약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국내장학금

‘대한민국의 내일을 후원하다’

찬란한 역사의 미래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창조해야 한다.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정세영 명예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 속에 항상 녹아 있던 이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진심 어린 힘이 되고자 한다.

■ 포니정 장학금

사업 배경

정세영 명예회장은 1995년 미국 유학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을 때 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장학금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인재 중시 철학으로 임직원의 교육 기회 확장에 앞장섰던 그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포니정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선발 과정 및 지원 내용

매년 9월 대학에서 역사, 철학, 토목·건축(공)학을 전공하는 2~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추천을 받는다. 면접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진취적 기상을 지닌 대학생 30명을 최종 선발한다. 장학생들에게 1년간 동계 워크숍, 하계 현장답사, 현대산업개발에 재직 중인 선배와의 멘토링, 해외 학술탐방 장학생 선발, 홈커밍데이 초청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으로 재단의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누적장학생(2007~2015) — 294명



■ 예술 장학금

2008년 북한문화공간 포니정홀의 개관에 맞춰 예술 분야를 후원하고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김준희 학생을 예술장학생으로 선발하고 3년간 장학금과 연주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어서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영창뮤직 콩쿠르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매년 9월 영창뮤직에서 피아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여러 부문의 콩쿠르를 열어 국내외 수상자를 선발하며, 수상자에게는 포니정 재단에서 총 5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누적장학생(2013~2015) — 119명

■ 새터민 장학금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터민의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문화원의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English for the Future(EFF)프로그램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영국문화원의 영어 수업 6개월, 영국대사관 인턴십 2개월의 기회를 갖는다. 이후 쉼브닝 장학생으로 영국 소재 대학에 진학하거나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누적장학생(2011~2015) — 63명

■ 해외학술탐방단

당해 포니정 장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선발 공지한다. 세계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일 전공자 2인 1조로 탐방계획서를 접수한다. 6주 이상의 탐방 계획과 예산 항목 등을 포함한 탐방계획서를 학술탐방 목적의 명확성, 일정과 내용의 전문성, 구성원의 적극성과 여학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서류 심사와 PT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팀을 선발하며, 팀 당 1천만 원의 탐방지원금을 지원한다.

누적장학생(2013~2015) — 6명

■ 유소년 축구 장학금

포니정 재단은 풍요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15년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협약을 맺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우수한 유소년 축구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총 6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매년 11월 대한축구협회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시도협회, 중등/여자연맹, 기술교육실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서류심사를 통해 60명을 최종 선발하고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Interview



2008년 3기 포니정 장학생 박초롱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저는 교류사의 연구가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자 제가 쌓은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 혹은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수많은 분들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혼자서만 앞만 보고 달려 나가지 않겠습니다. 종종 멈춰서 주변을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환하게 넓혀주신 이 길에 많은 이들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구자가, 또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해외장학금

‘미래의 주역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포니정 재단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장학사업의 첫 대상국가로 베트남을 선정했다. 풍부한 성장잠재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미래 개척 의지가 정세영 명예회장의 도전정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가교가 되고 미래의 주역이 될 베트남 인재를 지원한다.

■ 베트남 장학금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 학생 가운데 국제적 감각, 성적,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60명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추천 받는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에 해당하는 USD 500달러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누적장학생(2007~2015) — 500명

■ 베트남 교환학생 장학금

한국어를 전공하는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에게 한국어를 심화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국제처와 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베트남 장학생 중 한국어 전공자 2명을 고려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초청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1년간 생활비 월 90만 원, 왕복항공권, 한국어센터 여름정규과정 수업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베트남 초청 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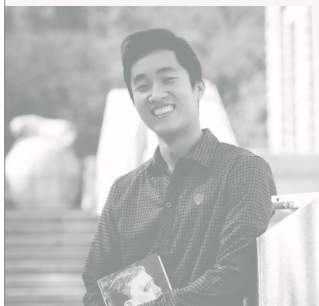
베트남 장학생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심화 프로그램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기존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 심사를 통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입학허가를 얻은 학생 중 최종 2명을 선발한다. 석사과정 2년 동안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매월 생활비 90만 원, 50만 원 한도의 논문심사/인쇄비, 건강보험료, 왕복항공권 등을 지원한다.

누적장학생(2012~2015) — 6명

Interview

2015년 베트남 초청 장학생 르 딘 카이 Le Dinh Khai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포니정 초청 장학생에 지원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포니정 재단과의 인연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한국어 공부는 시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자유로우면 그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학기에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면 다음 학기부터는 제 스스로 연구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창조적인 공학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PONY
CHUNG
FOUNDATION

PONY CHUNG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is a businessman who left bold traces in Korea’s auto industry. In an era when wigs and shoes where the major export items, he dreamed of exporting automobiles. His belief that the “future is not waiting but a challenge and an exploration” has been proven through automobiles and his dynamic life.

- 1928

●

Born in Tongcheon, Gangwon-do
- 1953

●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B.A.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 1954

●

Admitted to Columbia University, NY, US
- 1955

●

Transferred to Miami University, Ohio, US on a full scholarship
- 1957

●

Graduated from Miami University, Ohio, USA (M.A. in Political Science)
- 1965

●

Appointed as first head of Hyundai E&C’s Thailand branch and won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Project
- 1967

●

Founded Hyundai Motor Company and was inaugurated as its first president
- 1974

●

Participated in the Turin International Auto Show with Korea’s first locally made car, Pony
- 1976

●

Started to mass produce the Hyundai Pony and began exporting the model to Ecuador
- 1977

●

Chairman of the Korea-British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1977-1995)
- 1983

●

Named as the Honorary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
- 1985

●

Received the Gold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Award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 1986

●

Named as one of the “Hidden Heroes of the Industry” by New York Times
- 1987

●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of Law from Miami University, Ohio
- 1987

●

Began exporting the Hyundai Pony Excel to the US
- 1987

●

Inaugurated as Chairman of Hyundai Group and HMC (1987-1995)
- 1987

●

Vic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1987-1997)
- 1991

●

Developed Alpha Engine and Transmission, Korea’s first independent engine
- 1993

●

Chairman of the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1993-1999)
- 1995

●

Received Asia’s Top Businessman of the Year Award from Automotive News
- 1996

●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Yonsei University
- 1997

●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Korea University
- 1998

●

Received the Order of Civil Merit (Mokryeonjang)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 1998

●

Chairman of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1998-2002)
- 1999

●

Inaugurated as the Honorary Chairman of Hyundai Development Company
- 2005

●

Passed away at age 78

A LIFE OF EXPLORATION AND CHALLENGE

He was a man of innovation and challenge, pouring all his energy into producing Korean cars with a stance that one cannot survive in any field without one’s own knowledge and technology. Such thought led to the birth of Korea’s first locally made car, Pony. It was first presented to the public at the 55th Turin International Motor Show held in 1974, a moment when Korea became the 16th in the world to produce its own car model.

He continued to launch upgraded models, making efforts to acquire technology with a belief that robust basics enables innovation. In 1976, Honorary Chairman Chung made an impressive record for making the “first export of cars made in Korea.” Excel was first produced in 1985, which sold 186,000 units during the initial year of its launch and 260,000 units the following year. In 1986, the New York Times chose Honorary Chairman Chung as one of the “Top 6 Hidden Heroes of the Industry.” This was when he was started to be called by his nickname, “Pony Chung.” He knocked on the doors of exports with a tireless pioneer spirit and prepared for the future in advance by backing talents, investing in R & D, and nurturing related industries. Although conditions were tough to a new player in auto manufacture, he achieved his goals with perseverance and passion.

RIGHTEOUS MANAGEMENT PUT INTO PRACTICE

Jungdo (right way), or righteous management, was the principle that enabled him to achieve the dream that was once considered impossible. He believed that a sense of ethics and responsibility leads to a greater vision, enhanc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In December 1995, while serving as the chairman of Hyundai Motors, he held a ceremony proclaiming the “Code of Management Philosophy and Corporate Ethics.” In this occasion, he emphasized that “if one aims for honesty and manages the company with righteous norms of behavior and sense of ethics, the company will gain competitiveness in the long-term.” As a CEO that puts Jungdo Management into practice, he set an example for the executives and staff, allowing him to stand at the forefront to boost competitiveness.

Nurturing talents was one of the major tasks Honorary Chairman Chung emphasized, in his aim to become the world’s most respected and competent company. As he believed that excellent talents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innovation and challenge, he did not spare investment on talent-nurturing programs including various training for employees.

AN INNOVATIVE HUMANIST

Chairman Chung expressed himself as a daring and dry businessman, but he was also a man of love and sharing man. He dreamt of a prosperous life for all, emphasizing that it is humans who bring both innovation and challenge. He believed that there is powerful energy in the intelligence of people who share righteous goals. He earned the hearts of the people he believed in. With the minds of those hearts, he wrote the history of Korea’s auto industry. “Pony Chung,” the humanist and innovator: it is a name to be remembered by all who loved him.

WE FULLY SUPPORT YOUR CHALLENGE AND DREAM

The Pony Chung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memory of the work and spirit of Chung Se-yung, the Honorary Chairman of Hyundai Development Company who passed away in 2005.

Honorary Chairman Chung developed and manufactured Korea’s first locally made automobile, Pony, in a once barren land. Since then, he took the lead in developing new cars and pioneering the export market, thereby transforming Korea into a leading nation in the auto industry.

It is safe to say that Korea’s auto industry, now boasting its status as top 5 in the world, started from Honorary Chairman Chung’s belief and challenge that the “future is not waiting but a challenge and an exploration.” Since 2005,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en carrying on his creative and innovative spirit of pioneering and philosophy of emphasizing talents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projects.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preparing for the future, supporting the continuous challenge and innov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nurturing talented human resources. We will continue our journey by fully supporting those who take on the challenge fueled by their dream and passion.

Kim Chul-su
Chairman, Pony Chung Foundation

BOARD MEMBERS

Kim Chul-su
• Chairman, Pony Chung Foundation

-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Chung-Ang University
- Chairman of the Board at the Institute for Trade & Investment
- Former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hung Mong-gyu
• Director

- Chairman of Hyundai Development Company
- President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 Former Chairman of Hyundai-Kia Motors

Choo Sun-hoe
• Director

- President of Choosunhoe Law firm
- Chairman of Alumni Association, Korea University
- Former Acting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ee Yang-sup
• Director

- Chairman of MS Autotech & Myoungshin
- Former President of Hyundai Motor Company

Gong Byeong-ho
• Director

- President of Gong Institute
- Form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Free Enterprise
- Former CEO of Intizen

Cho Seong-ho
• Auditor

-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Former President of Valtech Consulting

Ryu Yong-ho
• Auditor

- Lawyer at Kim & Chang
- Former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

HISTORY OF THE PONY CHUNG FOUNDATION

| | | |
|------|-----|--|
| 2005 | OCT | Establishment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
| | NOV | Completed registration in court (Seoul District Court, Samsung Registry Office) |
| 2006 | APR | Held an agreement ceremony for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Meil Business Newspaper) |
| | MAY | Published a memorial book as tribute to the late Chairman Chung Se-yung |
| | | Held the unveiling ceremony for the bust sculpture of the late Chairman Chung Se-yung |
| | SEP | Newly organized the Pony Chung Scholarship Program |
| | DEC | Held the first awarding ceremony for the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
| 2007 | SEP | Held the first awarding ceremony for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s |
| | OCT | Signed an MOU wit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for a scholarship program |
| | | Held the awarding ceremony for the first Vietnam Scholarship |
| 2008 | MAY | Opened the Pony Chung Hall located in I-Park Tower, Samsung-dong |
| | AUG | Newly organized the Pony Chung Academic Support Program to support the research of history professors |
| | OCT | Expanded the scholarship program for Vietnam National University(Hanoi) |
| 2010 | MAY | Published Pony Chung's Dreams Continue, the memorial book on the 5th anniversary of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
| 2011 | MAY | Signed an MOU with the British Council to sponsor Englis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
| | NOV | Signed an MOU with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for the Vietnam Invitation Scholarship Program |
| 2012 | FEB | First recipients of the Pony Chung Vietnam Invitation Scholarship arrived in Korea |
| | JUN | Revised the Pony Chung Academic Support Program to support rising scholars in the area of humanities |
| 2013 | APR | Newly organized the Pony Chung Overseas Academic Investigation Program |
| | SEP | Sponsored the first Pony Chung Foundation Young Chang Music Concours |
| 2015 | FEB | Held the first homecoming day for Pon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
| | MAY | Published Pony Chung's Life and Dream, a memorial book on the 10th anniversary of late Chairman Chung Se-yung's death |
| | AUG | Authorized as a trustworthy public corporation |
| | SEP | Newly organized the Vietnam Exchange Scholarship Program |
| | | Opened the Pony Chung Hall II located in the Suwon IPark Museum of Art |
| | DEC | Signed an MOU to support Youth Football Scholarship |
| | | Held the awarding ceremony for the first Youth Football Scholarship |
| 2016 | FEB | First recipients of the Pony Chung Vietnam Exchange Scholarship arrived in Korea |
| | MAY | Signed an MOU with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RIKS) of Korea University to support research on Korean studies |
| | AUG | Sponsored the first Minyeon Young Korean Studies Academy |
| 2017 | MAR | First Pony Chung Fellowship researchers arrived in Korea |

1. CONTRIBUTIONS

| Contributors | Amount |
|--|------------|
| Kyungshin Corp, Sejong Industrial, I-Service, I&CONS, I-CONTROLS, Chung Mong-gyu, Chung Sang-yung, Korea Flange, Han Moo Shopping, Hanil E-wha, Hyundai Mipo Dockyard,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velopment Company,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Hyundai Ce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Hyundai DSF, Hyundai EP, etc. | 46,305,770 |
|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5) | |

2. STATUS OF ASSETS

| Section | Amount |
|--|------------|
| Underlying assets | 44,277,000 |
| Common assets | 446,054 |
| Total | 44,723,054 |
|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5) | |

3. PERFORMANCE FOR MAJOR PROGRAMS

Revenue Details by Area

| Section | Amount |
|--|-----------|
| Donation Revenues | 7,000,000 |
| Transfer of Preparatory Reserves fund for essential business | 851,126 |
| Other Revenues | 119,591 |
| Balance from Previous Quarter | 1,589,248 |
| Total | 9,559,965 |
|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5) | |

Major expenditures

| Section | 2015 Expenditurest | Accumulated Expenditurest |
|--|--------------------|---------------------------|
| Programs | 719,864 | 4,956,089 |
| Pony Chung Scholarships | 432,981 | 2,869,175 |
| Domestic Scholarships | 255,567 | 2,042,028 |
| Vietnamese Scholarships | 34,755 | 288,363 |
| Invitation Scholarships | 59,744 | 143,373 |
| Overseas Academic Travel | 20,000 | 105,628 |
| Art Scholarships | 34,775 | 189,732 |
| Support for students from North Korea | 28,140 | 100,050 |
| Academic Grants | 109,140 | 511,060 |
| Pony Chung Innovation Award | 100,000 | 900,000 |
| Other programs | 41,679 | 616,330 |
| Other support | 121,046 | 652,330 |
| Total | 840,910 | 5,608.569 |
| (Unit: KRW 1,000, as of December 31, 2015) | | |

INNOVATION AWARD

‘A dedication to an innovative thinker and challenger’
Honorary Chairman Chung was a man of creative thinking, tireless determination, and a bold spirit of taking on challenges, living a life of innovation. We would like to pass on his beautiful spirit of the extremely difficult and lonely struggle to the next generations, and fully support today’s Pony Chungs who will take on the bold challenges to realize their dreams.

Background

The Pony Chung Innovation Award was establish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late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the pioneer and frontier of Korea’s auto industry. The award is given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 various areas such as diplomacy, economy, society, culture, arts, etc., who realize excellent achievements through innovation and challenge, or facilitate positive changes among people through their achievements,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and/or improve national prestige.

Selection Process and Grants

From January to February of each year, the Pony Chung Foundation receives recommendations for the Innovation Awards candidates from the foundation executives, previous recipients, previous judges, as well as prominent figures and heads of organizations from in and out of the country. The screening committee, consisting of 10 judges, screens the qualification and achievement of each candidate and selects the final awardee. The awardee is granted with a prize money worth KRW 100 million and a plaque.



Previous Awardees

| | | |
|------|--------------|--|
| 2007 | 1st Awardee | Ban Ki-moon, UN Secretary General |
| 2008 | 2nd Awardee | Suh Nam-pyo, President, KAIST |
| 2009 | 3rd Awardee | World Headquarters of Canaan Farmers Movement (President Kim Bum-il) |
| 2010 | 4th Awardee | Cha In-pyo and Shin Ae-ra (Couple) |
| 2011 | 5th Awardee | Chang Ha-joon, Professor, University of Cambridge |
| 2012 | 6th Awardee | Kim Beom-su,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Kakao, Inc. |
| 2014 | 7th Awardee | 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Harvard Law School |
| 2014 | 8th Awardee | Yuna Kim,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old Medalist |
| 2015 | 9th Awardee | Giorgetto Giugiaro, Industrial Designer |
| 2016 | 10th Awardee | Cho Seong-jin, Pianist |

Interview with Awardees

7th Awardee Jeannie C. Suk
Tenured Professor, Harvard Law School

“I aim to go beyond having a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having the technique to use it properly. This is exactly why I am making efforts to nurture young innovators who can flexibly apply law based on practical wisdom in various areas—such as the arts—rather than becoming a legal expert plainly following the language of law. I believe that innovation is found in the process than the results. The process of persistently seeking for new tasks and focusing with passion is the true power that leads to creative innovation.”

ACADEMIC SUPPORT PROGRAM

‘Extraordinary Affection Towards Fundamental Studies’

As a man who loved reading books, Honorary Chairman also had great academic passion. The spirit of the businessman who studied, realizing the importance of humanities, and passionately took on the challenge for innovative projects is now a strong backbone for today’s rising scholars.

■ PONY CHUNG ACADEMIC SUPPORT

Background

Building on the desire of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that one can only raise competitiveness when the fundamentals are firmly established,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en promoting academic research project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humanities since 2007. This is because fundamental studies are not only the foundation for practical and applied studies, but also the groundwork for national development. We aim to provide full and consistent support for rising scholars who just started research in humanities, such a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etc., thereby lighting up the future of humanities.

Selection Process and Grants

The program is open to those who have received their PhD in humanities within the past five years. In May of each year, the Pony Chung Foundation opens a public contest for the academic funding of research projects. Following the first step of the document screening by the foundation is the second document screening process wherein two professors—not affiliated to the university the applicant attends—each score the applicant’s documents. The scores of the two professors are added and thrice the number of the final recipients are selected. In November, three professors, recommended by the foundation, conduct a one-on-one interview, and the two most outstanding researchers would be selected as final recipients.

Researchers selected as final recipients are each supported with KRW 40 million as research fund and KRW 10 million as publishing fund.

Interview with Awardees

2012 Academic Support Recipient - Nam Dong-shin,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 believe that we can correct and/or complement not only the provisions that appear on epitaphs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traces or foreign relations between Josun and Quing, but also the entire list of Korea’s ancient and medieval epitaphs, including the contents sought to decipher the epitaphs. Trees with weak roots easily fall. Likewise, national development without robust fundamental studies will soon face limitations. We must remember that healthier and more developed societies emphasize humanistic imagination that explores the society and its people. Humanistic imagination is not only a bridge enabling a higher level of sharing humane communication, but also a necessary element for the society to change and take-off.

■ PONY CHUNG FELLOWSHIP

Background

Global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towards Korean culture and Korean studies. Pony Chung Foundation, together with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of Korea University, invites excellent rising researchers in the area of Korean Studies to build the foundation for further growth of the field. By providing stable financial support and research infrastructure, we want to support domestic investigation, research, networking, and research paper publishing,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Korean studies.

Selection Process and Grants

Foreign researchers who have earned their doctorate in Korean studies within the last five years can apply via e-mail. The final two recipients are selected through, first, a document screening, and then through an interview by the Pony Chung Fellowship Selection Committee. Selected researchers are provided with KRW 50 million as research fund and KRW 10 million as publishing fund. Also, they can conduct research activities as a “Pony Chung Research Professor” at RIKS of Korea University.

■ RIKS ACADEMY

Background

RIKS Academy aims to provide a forum for young researchers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to communicate in the early stages of research, thereby expanding the network for Korean studies. Together with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RIKS) of Korea University, we support various research and exchange activities for researchers.

Selection Process and Grants

This program is open to both Korean and foreign graduate students who are currently taking their masters or doctorate program majoring in Korean studies in universities either in Korea or overseas. A 10-day Korean Studies Academy is held for 20 researchers, who are selected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The foundation supports various research and exchange programs such as professional lectures, research presentations, and field investigations. Selected students are also granted with a KRW 1 million research scholarship, and participants from other countries are provided with travel expenses (KRW 1 million for the Americas and Europe, and KRW 500,000 for Asia).

DOMESTIC SCHOLARSHIPS

‘SUPPORTING KOREA’S FUTURE’

The future of a glorious history is not given but should be created for oneself. For a country to grow and further develop, we need numerous talents daring to unfold their dreams. Based on such belief which was always embedded in Honorary Chairman Chung’s philosophy of respecting talents, we wish to stand as a true supporter for the young talents marching for a better future.

■ PONY CHUNG SCHOLARSHIP

Background

When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 was studying in the US in 1995, he almost had to suspend his studie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Thankfully, he received a full scholarship from the school and experienced the importance of scholarships. As a man who took an initiative in providing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executives and staff with a philosophy of putting talents first, he believed that students need to carry on their passion for learning,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 may be. To this end, the Pony Chung Foundation is promoting scholarship programs to support and encourage future talents to pursue their dream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Selection Process and Grants

In September of each year, universities can recommend their sophomores or juniors majoring in history, philosophy, civil engineering and/or architecture. Through an interview, a total of 30 students with outstanding grades and a forward-looking spirit are selected as final recipients. For one year, the recipients are provided with various opportunities such as a winter workshop, summer vacation field investigation, mentor program with a senior working for Hyundai Development Company, invitation to the homecoming event, and an opportunity to be selected as Overseas Academic Investigation Program Scholarship recipients, etc. The scholarship is granted for one year and can be extended through foundation screening.

Accumulated Recipients (2007~2015) — 294 recipients

| | |
|---|--|
| Interview with Awardees | 2008 3rd Scholarship Recipient – Park Cho-rong (Department of History, Ehwa Womans University) |
| “I believe that research on the history of exchange will be of great help for our society to become more tolerant. Also, I want to study throughout my life and share with others the knowledge I accumulate. My dream is to pay back to those who helped me become who I am today, whether it be college lectures or museum research. I promise not to simply run for tomorrow on my own. I will pause once in a while to take a broader look around me. I will invite many others into this lightened and broadened path: to become a researcher and educator who can give a helping hand to move on together.” | |

■ THE ARTS SCHOLARSHIP

To support the arts arena in line with the opening of the cultural complex Pony Chung Hall in 2008, Kim Joon-hee, a piano maj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as selected as an Arts Scholarship recipient, receiving financial support for performances and scholarships for three years. Also, to discover talents in arts, we grant scholarships to the winners of the Young Chang Music Concours. In September each year, we select prize winners at contests hosted by the Pony Chung Foundation for piano, clarinet, and saxophone, supporting a total of KRW 50million for scholarships.

Accumulated Recipients (2013~2015) — 119 recipients

■ OVERSEAS ACADEMIC INVESTIGATORS

The Overseas Academic Investigators notice is posted in May each year for the recipients of that years’ Pony Chung Scholarship. As the program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recipients to broaden their views in the greater world and also carry out an in-depth investigation on their major, the team consisting of two individuals with the same major submit an investigation proposal including a plan of more than six weeks, budget items, etc. The proposal is evaluated based on the clarity of the investigation purpose, the expertise of scheduling and content, the member’s proactive attitude and language proficiency. Two teams are selected at the final stage through document screening and presentation interviews, each team provided with KRW 10million for the academic investigation.

Accumulated Recipients (2013~2015) — 6 recipients

■ NORTH KOREAN DEFECTOR SCHOLARSHIP

This program aims to support Englis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working hard to settle in Korea after leaving their homes in North Korea. We support them to complete the English course in the British Council, and students who are selected for the English for the Future Program (EFF) get the opportunity to take a six-month English course at the British Council and a two-month internship at the British Embassy. The students can continue to study at a university in the UK with the Chevening Scholarship or improve their English proficiency through language study abroad programs.

Accumulated Recipients (2011~2015) — 63 recipients

■ YOUTH FOOTBALL SCHOLARSHIP

In 2015, to foster talents in various fields who will lead a prosperous future society, the Pony Chung Foundation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for supporting scholarships to back the nurturing of talented football players. To support excellent young football players who are continue both their studies and training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 foundation grants a total of KRW 600million for five years. In November each year, the Scholarship Screening Committee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selects sixty final recipients among the candidates recommended from municipal and provincial associations, federations of secondary schools and female athletes as well as technical training team through document screening, and grants them with KRW 2million each.

OVERSEAS SCHOLARSHIPS

‘UNSTINTED INVESTMENT ON FUTURE LEADERS’

Vietnam was selected as the first recipient of the foundation’s overseas scholarship program promoted to nurture future talents, because Vietnam’s spirit to pioneer the future and its remarkable development with abundant growth potential is in line with Honorary Chairman Chung Se-yung’s spirit of taking on challenges. We support the Vietnamese talents who will bridge Korea and Vietnam, and become leaders of the future.

VIETNAM SCHOLARSHIP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and Hanoi) can recommend 60 students,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national mind-set, grades, family circumstances, etc. The selected recipients are granted free full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for one year.

Accumulated Recipients (2007~2015) — 500 recipients



Interview with Pony Chung Vietnam Scholarship Recipients

2015 Vietnam Invitation Scholarship Recipient - Le Dinh Khai, Masters of Science Course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mong Vietnamese students who study abroad, there are many who wish to study in Korea. The opportunity for the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kept circling in my head, which I have learned about when I was granted with the Pony Chung Scholarship during my senior year. I ended up quitting my job and applied as a Pony Chung Invitation Scholarship recipient, which changed my life. In other words, my relationship with the Pony Chung Foundation has become a turning point of my life. I am trying to improve m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o a level where I feel comfortable in daily communication rather than clinging too much to the test results because I can concentrate more on studying when I feel free from language. Once I obtain the basic knowledge on my major this semester, I am planning to carry out my research independently. My ultimate goal is to become a creative engineer equipped with solid basics.”

VIETNAM INVITATION SCHOLARSHIP

We started this intensive program by signing an agreement with th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to continuously support the Vietnamese scholarship recipients to carry on their studies. The program is open to previous Pony Chung Vietnam Scholarship recipients who have graduated from university with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s, and is preparing to study abroad for a master’s course. Through the foundation’s screening process, two students would be selected as final recipients among students who have been admitted to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roughout the two years of studying for their master’s degree, the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admission fee, full tuition fee, a monthly living expense of KRW 900,000, maximum KRW 500,000 for thesis assessment and printing, round-trip flight ticket, etc.

Accumulated Recipients (2012~2015) — 6 recipients

VIETNAM EXCHANGE STUDENT SCHOLARSHIP

We started this program in 2016 by signing an agreement wit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f Korea Universit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cipients of the Pony Chung Vietnam Scholarship majoring in Korean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more comprehensively. Two of the Vietnam Scholarship recipients who major in Korean would be invited to Korea University as exchange students and would be provided with various opportunities to help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one year, the recipients are provided with a monthly living expense of KRW 900,000, round-trip flight ticket, tuition fee for the summer course at the Korean Language Center, application fee for TOPIK, etc.



**SUPPORT
YOUR
DREAM**

▮ PONY CHUNG ▮
FOUNDATION